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광주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현장 낙하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05.24. 11:30

□ **시공사** : 중흥토건(주), 두산건설(주) (2021년 시공능력평가 17위, 28위)

□ **현장개요**

- 현 장 명 :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현장(광주광역시 임동)
- 공사기간 : 2020년 09월 ~2024년 02월
- 공사규모 : 14개동(지하 3층, 지상 39층), 아파트 2,240세대/ 오피스텔 250실
- 발 주 자 :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재해내용**

'22.05.24(화) 09시 22분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펌프카 붐대 접합부위가 파단되면서 낙하(4M높이) 하여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타설공을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

□ **현장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강재의 피로응력으로 인한 파단
- ▷ 고용노동부 경찰 등 사고원인 조사 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작업전 반복적인 충격하중으로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의 생산연도, 작업량, 장비이력 등을 사전 검토하고 이상 발견 또는 예상시에는 보강 또는 교체
- ▷ 엔드호스 길이는 초과하여 사용을 금지하며 붐대 하부에는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관리

■ 언론 보도자료(연합뉴스 외)



펌프카 작업대 낙하로 1명 사망...광주노동청, 중 대재해 검토(종합)

송고시간 | 2022-05-24 11:24



건설현장 펌프카 안전사고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이 지면으로 떨어졌다.

■ 언론 보도자료(연합뉴스 외)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30대 중반)씨가 낙하하는 붐에 부딪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 붐을 높이 펼쳤으나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붐이 꺾이면서 30m 길이의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하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areum@yna.co.kr